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읽고서

송은우

2/23/2013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꿈꾼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않는 사람이 갖고있는 공통점일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 구원을 꿈꿀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있는 비종교적인 의미의 구원을 꿈꿀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김세윤 교수는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를 통해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구원이란 무엇인가” 는 시작한다. 구원 즉 redemption 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악과 그난의 현상들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죽음에 걸려 있는것이며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현재 죽음의 상태임을 재확인 하는것이다. 이러한 죽음과 그 증상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의 저자 김세윤 교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즉 불순종 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것이 자연적인것이고 당연한것인데 인간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스스로의 의지로써 하나님께 불순종 한것의 결과 가 바로 죄이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이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옴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받지못하고 본인들에게 남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한 자원만으로 살아가야 하기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즉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죄로 인해 힘이 제한되었기에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며, 사랑이 제한되었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죄로 인해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고통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자원과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수 있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인간의 제한적인 자원과 힘때문에 구원은 커녕 서로의 자원을 뺏을려고 하고 서로를 괴롭게하고 상처를 준다. 어떤 종교들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과 지혜의 개발로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들의 놀라운 지혜와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전 보다 더, 죽음의 증상들은 고난과 고통에 괴로워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들을 구원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것이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이유이기 때문으로 그러한 제한적인 능력과 자원으로는 자신들 구원할수 없는것이 논리적으로도 정확한것을 알수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무한의 능력과 자원을 가진 초월자가 해주어야 하는것이다.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 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가 그리스도 라는것을 어떻게 믿을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어 어떻게 주장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인자 라고 칭하시는데 이 인자라는 칭호는 4복음서 여러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칭호로써 자주 쓰신다. 이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즉 “그 사람의 아들” 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독특한 칭호이다.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 7장 13절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을 보는데, 그 분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이 생겼다고 나온다. 이 “사람의 아들” 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생김새 가 사람 같다는 의미 인데 구름을 타고 오는것으로 보아 신적존재 인것을 알 수 있다. 구름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대니엘서 에 나오는 “인자” 이며 종말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윅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로 오신것이다. 이사야 42-53장의 이른바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그 마지막 노래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종이 그들을 대표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활을 감당하러 오신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온대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러 오신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는 율법의 선언이 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된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자로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할려고 한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무너뜨릴려고 한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옳았다 는것을 증명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부할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시켜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았음을 인정하셨다는 뜻하는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고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키 위해 예수님을 십가에 못박았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을 을이크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체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 이냐고 도전한다. 결국 모든 종교들에 각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내용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것으로, 상대적인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2천년 전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까지 의미가 있는, 절대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이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 생명을 주었으므로 창조의 사건이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수 있을까? 신약성경은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 첫번째는 제사 이다. 구약시대때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는 자비석에 속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가 용서받았다. 제사에는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덮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버리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우리 죄에 대한 덮어 버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두번째는 화해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 화해 이다. 이와 같은 샬롬, 곧 하나님과의 화해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수있게된것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것이다. 세번째는 구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치른 것이며, 그러므로 죄의 노예된 우리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구속시키셨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결과는 자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됨으로 자유를 얻은것이다. 네번째는 새 언약이다. 새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다룬 것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 어떻게 개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에 관한 주관적인 구원 사건또한 중요할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곧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덕 입을 수 있는건인가?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 는것을 믿는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극으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는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인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됨에 참예하고 그리스도가 하신일에 참여하는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구원 사건 인것이다. 성경은 이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네 가지 그림으로 표시하는데 그 네가지 는 바로 의인 됨, 화해, 하나님의 아들 됨, 새로운 피조물 됨이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올바를 관계를 파괴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죄에 대한 벌을 받은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게 벌이 없다. 그리모르 우리에게 더이상 정죄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에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인 됨이다. 두번째 화해함이란 인간 관계에서 온 그림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적대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 관례로 회복되었고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가 있는것이다. 세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됨은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림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럼으로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것이다. 즉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자가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인간의 유일한 초월의 길은 그 피조물의 제한성을 부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고 순종하는데 있다. 네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는 구원의 실재를 나타낸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것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에 참예하는 삶인것이다.

구원에는 세 가지 세자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 이다.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와 부활의 사간은 사탄의 등뼈를 꺽은 사건으로써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건이다. 구원의 현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이다.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현재에 의인으로서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즉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명하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은 “자기 주장하는 옜사람” 이 실제로 죽어 가는 과정이다. 그와 동시에 부활로 새로워진 새 생명이 실재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된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현재이다. 그리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성화의 과정 곧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이 죽어 가며 새로운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 가는 과정이 종결지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히 참예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영화이고 구원의 미래이다.

마지막으로 김세윤 교수는 예정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여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구원은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끔 흔들려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김세윤 교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를 끝맺음 하고 있다.

수학을 공부할때 어떤 문제의 답만 외우는 사람은 좋은 수학자가 될수 없을것이다. 아마 좋은 성적 조차 받지 못할것이다. 좋은 수학자가 될려면 문제의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공식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본인들이 받은 구원이 정말 무엇인가 에 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을때가 많은것 같다. 마치 수학문제의 답만 외우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것이라는, 목사님이 전해주신 정답만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수학문제의 답만 알지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르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수 없듯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하여 목사님을 통해 들은 정답만 알고 구원이란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이해할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전할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수 있을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를 읽으며 속이 시원했다. 오랬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수학문제를 공식 하나 하나, 계산 하나 하나 자세하게 짚어주는 수학정석책 을 읽은 느낌이랄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뮤지컬을 300킬로미터 밖의 담너머 로 보다가 이제는 극장의 VIP 석에 앉아 내 눈 바로 앞에서 배우들의 입냄새까지 맡으며 보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더 이해가 되는 표현일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수있게 됨으로써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 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써의 죄인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죄인,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고 그 증상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는 죄인 이며, 예수님이 추상적인 개념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예비하신고 준비하신 주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수 있을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때 나의 묵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 단순히 지나쳤던 구절들도 나에게 새로이 다가올꺼 같아서 기쁘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역활을 하는지 에 대해 이해하게 된것은 정말 기쁜일이다. 곧 부활절이 다가온다. 주님이 내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예전보더 더 감사하며 묵상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해본다.